

“동명동, 광주만의 고유함 담은 문화공간 만들 것”

이용섭 시장, 문화마을 추진 상황 현장 점검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후 동구 동명동과 장동 일원에서 광주 대표문화마을 추진상황 현장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주민, 공무원 등과 마을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동구 동명동 일대가 ‘광주만의 고유함’을 담은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동명동 일대에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오세규 전남대 교수 등과 함께 광주대표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동명동·장동 현장에서 광주대표 문화마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시민들과 함께 일대를 걸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동명동은 일제 강점기시대에 철

거된 광주읍성의 동문 밖 동계천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광주시의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역사, 교통, 교육,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장소다.

다양한 계층의 삶과 일상이 담겨있고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이 많은 곳으로 현재는 이색적인 카페와 맛집 등이 밀집돼 서울의 경리단길에 빗댄 ‘동리단길’로 명성을 얻고 있다.

시는 동명동 일대를 아시아문화전당을 지원하고 배후기능을 하는 광주만의 독특한 역사, 문화, 상업

기능 등을 갖춘 문화마을로 조성하고 여기에 오감체험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동명동 일대 30만㎡ 지역에 대한 건축물·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와 사적지, 인공, 근현대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조사·발굴하고 스토리텔링 작업을 거쳐 유사한 콘텐츠 자원을 엮는 ‘주요 거리’ 추출작업도 진행 중이다.

시는 경열사 터, 광주교도소 터와 같이 광주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역사거리에서 한옥과 마당을 엮은 한옥마당거리, 이색 카페·주점·음식점이 몰린 즐길거리, 먹거리 등 8개의 거리를 관광 코스로 만들 예정이다.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전문가 및 시민참여형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올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마스터플랜에 담겨진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동명동 일대는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으로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광주만의 고유함이 묻어나는 콘텐츠를 발굴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향유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다면 광주에는 문화마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행복지역화폐” 경제활성화 활용” 제안 김기태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남도민들의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훈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서민경제생활 대책과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전남행복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2일 “전남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재해재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대중교통 증회운행으로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과 명절 징바구니 체감물가를 줄이기 위한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을 맞아 전남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전남행복지역화폐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남행복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군 내에서만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지역 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되는 선순환효과가 있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소비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정책 제안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행복지역화폐’는 대부분의 시군은 지류형태로 발행해 판매·운영하고 있으나, 영광시와 영광군은 전자카드와 모바일 등으로 지역상품권 발행 방식을 확대해 오고 있다. 소비자는 농협 등 해당 시군 판매처에서 지역화폐를 구입해 사용하고, 상점에서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순천=김승호 기자

동구, 성별영향평가 대면컨설팅 실시

광주 동구가 3일 동구청 상황실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1:1대면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불평등요인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는 제도다.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 전문컨설턴트 2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날 컨설팅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을 비롯해 신규사업, 청년·일자리·안전 등 구정 주요사업 30개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동구는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별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내년도 성인지 예산 연계를 꾀할 방침이다.

서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광주 서구가 오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은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률 미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378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남구, 찾아가는 코딩교실 인기몰이

광주 남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코딩교실’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첫 선을 보인 ‘찾아가는 코딩교실’은 아이들의 창의력 및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코딩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는 15개 학교 6개 학급으로, 참여 학생수가 1,3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교육 일정은 서둘러 마감됐다.

북구,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

광주 북구가 위기가정의 건강유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5일 보문복지재단(이사장 정영현)과 업무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 운영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는 지역 주민이 나누고 싶은 음식을 냉장고에 채워 놓으면 위기가정 대상자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업으로 공유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보문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한 3천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기부 받아 이달부터 중합복지관 4개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소 등 총 9개 기관·단체에서 행복나눔 냉장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산구, 인산디문화특구마을 배움여행

3일 광주 광주 김삼호 광사구청장과 구 공직자들이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문화 거리, 세계문화체험관 등을 찾아 외국인 주민 시설을 둘러보고, 지원사업을 듣는 등 배움여행을 다녀왔다.

광산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지역지원으로 특성화하고, 다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

이와 관련해 4월 광산구는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에 ‘고려인 역사 문화 복합이카이브센터 조성사업’으로 참가해 예산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임형택 기자

전남우정청,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 총력

17일까지 소포 우편물 291만개 소통 예상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이승원)은 9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을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완벽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한 가운데 전 직원이 추석 배송작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특별소통기간 중 소포우편물은 지난 해보다

5.6% 증가한 291만 통이 소통될 것으로 예상되며, 4,800여 명의 인력과 700여 대의 운송차량 및 각종 소통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우편물이 적기에 소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소통기간 중에는 당일특급 소포우편물의 접수가 중지되며, 6일부터 16일까지는 생



물 등 부패성 있는 우편물의 접수가 제한될 예정이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우체국은 9월 11일까지 배달을 실시하며, 추석 명절 이전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9월 9일 이전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